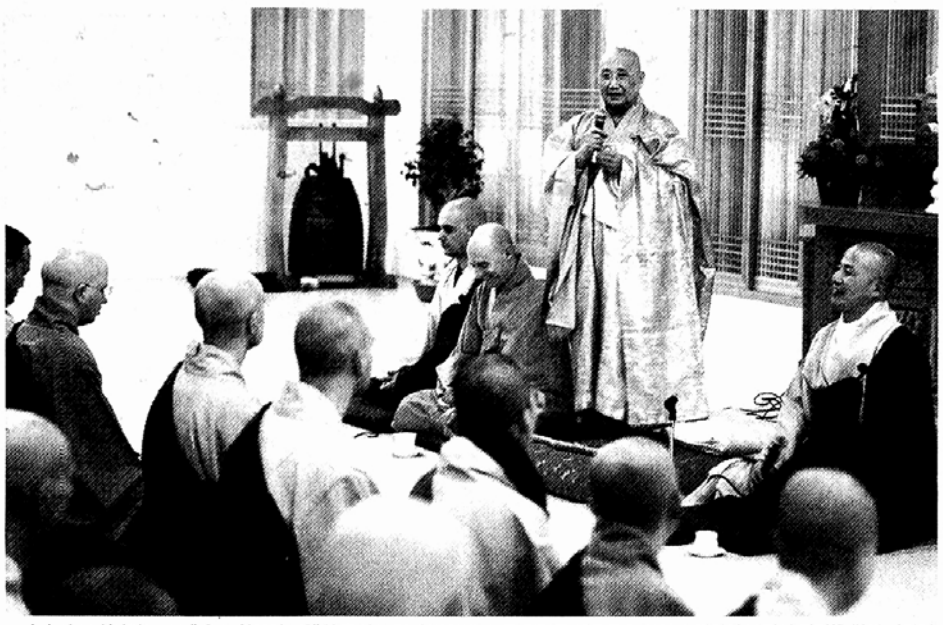


◇숭산스님(서있는 스님)은 11월29일 봉행한 무상사 결제 법회에서, 큰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아 진리를 향해 나갈것을 당부했다.

서양인들 설교식 불교 원치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보고파 해

음자리로 향하는 수행의 길에 올랐다. 이미 자전적 에세이집 〈만행〉으로 유명해 진 현각스님(미국인)을 비롯해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미국인), 무상사 주지 오진스님(폴란드인) 등이 모두 그러한 인연들로 이국땅인 한국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다.

이 스님들은 모두 숭산 스님의 생활 자체가 그대로 가르침이며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숭산 스님은 "언제나 이 순간 밖에 없다. 아무 것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모를 뿐이다! 공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과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과 떨어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의 영향을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래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제자들과 신도들은 순간순간 올바른 상황, 관계,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실천하고 있는 숭산 스님을 수행자의 사표로 삼아, 스승의 삶을 바로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하나씩 터득해 나간다.

나와 남 경계 없는 것

오래 전 숭산 스님이 제자들과 멕시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숭산 스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러 대봉 스님이 숙소를 찾아갔다. 그때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속옷 차림으로 대봉 스님을 반갑게 맞았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스님이 숭산 스님을 찾아왔다. 숭산 스님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그 스님을 반갑게 맞았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나서 잠시 후에 한국인 제자 스님이 숭산 스님을 찾아왔다. 숭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고리와 마고자를 차려입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저마다 어떻게 다른지 헤아리는 스님은, 찾아오는 제자들에 따라 옷 입는 그 한 가지에도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신 것이다. 그때 대봉 스님은 숭산 스님의 작은 행동에서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 법회 날 아침 대봉 스님은 몇몇 스님들과 유성의 여관으로 숭산 스님을 모시러 갔다. 한국인 시자 스님과 외국인 스님들이 큰 탁자에 둘러앉았는데, 숭산 스님이 언제 준비해 오셨는지 사탕, 과자, 빵 등을 한아름 내놓고 먹으라고 권했다. 계룡산 산골에서 군것질거리가 궁했을 외국인 제자들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직접 휴게소에서 사 오신 것이다. 외국인 제자들은 그 과자들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자 한국인 시자스님이 과자, 빵을 다시 숭산 스님 앞에 가져다 놓았다. 숭산 스님은 다시 그 과자들을 앞으로 내어 놓았고, 몇 번의 오고감 속에서 모두의 눈빛이 하나로 모아졌다.

대봉 스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생활방식과 문화도 다르다. 어떻게 그 사람과 사람사이를 연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숭산 스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가르침이다. 숭산 스님은 진정으로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집착 없이 모든 상황들에 대처하라고 당신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말없는 법문을 항시 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대봉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서양의 불자들은 기도와 명상 외에는 관심이 없다. 대부분이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깨달음을 얻길 원한다. 기독교적 선교 방식에 피곤해져 있는 서양인들은 불교의 스님들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설교식으로 하는 불교를 원치 않는다. 숭산 스님은 한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방식이나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시더라도 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바가 바르고, 마음이 맑을 뿐. 순간에 한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나를 몸소 보이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다."



◇무상사 결제 법회후 기념촬영에 나선 숭산스님(중앙)과 제자들.

이렇듯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진정한 보살도로 이끌어 주는 숭산 스님. 매일 매일의 생활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우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중생 제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숭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랑으로 제자들 감싸안아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만물은 공(空)하므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한 길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됩니다. 수행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절대이고 경계가 없으며, 나의 모든 행동이 순간순간 중생을 향한 큰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본래 '나'라는 것도 없으므로 다른 중생을 위한다는 말조차 틀린 말입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 길에는 생각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순간의 모든 행동은 진리이며 완벽하게 다른 중생의 고통과 닿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도와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며, 완벽한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무상사에서의 동안거 결제 법회가 끝나고, 숭산 스님은 무상사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요사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오! 에브리바디 히어. 원더풀, 원더풀.(여러분 다 여기 모여 있었군요. 좋아요)" 특유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로 숭산 스님은 제자들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차에 올라타 무상사를 뒤로 하면서도 연신 손을 흔들며 "바이, 바이"를 외치는 스님과 합장으로 배웅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비로운 큰 스님의 그늘이 얼마나 크며 포근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알수 있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월공스님



지장보살이 한가히 노닌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문전에 서서 눈물 거둘 날이 없나니
악업을 짓는 사람 많고
선업을 닦는 사람 적으니
지옥중생 교화하기에 어느 땐들 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누구나 다 자기업보의 완전한 소멸을 원한다.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도,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길 바라는 사람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업보의 완전한 소멸은 어떻게 해야 얻어질까? 지장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해탈하기 전에는 결코 혼자만의 해탈은 이루지 않겠다는 애틋한 서원을 세우셨다. 우리가 이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모두가 업보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참회와 기도를 통한 자기 수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만 겁 이전 지옥중생의 구원을 맹세한 지장보살은 영겁을 지나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오랫동안 구원의 행을 했지만 아직도 지옥이 북적이는 것은 구해주어도 우리가 다시 깊은 미혹에 빠져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리라.

여의주 같아, 그 광명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이

수행 안하면 지옥만 가까워져
매주 지리산서 점찰법회

를 해처럼 비추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밝은 햇빛이 되어주며 번뇌의 뜨거운 불길을 없애주는 청량한 달빛처럼 일체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고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건만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극락은 멀고 지옥은 가깝게 될 것이다.

지리산자락 인월 오봉산. 차가 뒤집어 질 것 같은 험난한 길을 오르면 분홍색의 화려한 5층 건물을 만나게 된다. 산 꼭대기에 웬 연수원 건물 일까 내심 황당해 하며 알아보면 바로 그 곳이 영선사다. 원래는 아주 작은 기도처였던 곳을 월공(月空)스님이 원력을 세워, 업장이 두터워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이들을 위해 지장기도를 시키며 점찰법회를 여는 곳으로 거듭난 사찰이다.

점찰법회란 신라 원광법사가 고승대덕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대중화한 신행운동으로 진표율사가 정착시켰다. 불자들이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쳐 일어난 산란한 마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전생의 선악업보와 현재의 고락길흉을 살펴 참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안락을 얻게 하여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과 무명을 사라지게 하고 청정행을 실천하게 하는 수행법이다.

월공스님은 역사 속에서 이 점찰법회를 끌어내 매주 토요일이면 50여 대중들과 함께 옛 점찰법회의 면모를 갖추어 간경과 독경, 사경과 염불을 하며 지장보살 전에 참회와 기도로 수행하고 계신다. 공군법사 출신인 스님이 신라 화랑의 스승이신 원광법사의 점찰법회 맥을 잇고 있으니 예사 인연이 아니지 싶다.

내가 월공스님을 처음 본 것은 재작년 함양불교대학 출범을 위한 모임에서였다. 군 법사 출신답게 모든 일을 절도있게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는 모습은 불타는 열정의 소유자 젊은 부루나처럼 보였다. 함양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불교대학이 문을 여는 날, 나는 깜짝 놀랐다.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어디서 그런 신심 있는 선남선녀들이 나타났을까 싶었다. 백 오십명 정도가 입학하여 날이면 날마다 늦은 밤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불자들을 보며 가슴속에서 환희심이 마구 솟았다. 스님은 이미 남원에서 불교대학을 출범시킨 경험이 있었다. 남원불교대학은 불교계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진, 지방을 대표하는 불교대학 가운데 하나이며 그 곳에서 배출한 포교사들과 근처



의 군 법당 법회를 도맡아 지원하고 계신다. 이처럼 남다른 정열과 신심으로 포교와 수행을 하시는 스님의 배경엔 2대째 스님가문이며 모친이 불교교육원을 운영하는 대보살이라 스님의 포교불사는 누대에 걸친 원력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스님은 반드시 지장보살이 발하는 광명처럼 중생의 번뇌를 사르르 녹여줄 시원한 달빛처럼 온 허공에 가득하게 진리를 펴시리라 믿는다. 언젠가 참 대단한 스님이라고 내가 면전에서 칭송을 하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먼 산 바라보며 하던 말이 생각난다.

"초발심이 변하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요. 교만함이 물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사 때문에 잠시 멈춰선 점찰법회를 다시 열면서 수행해야겠지요"

지리산 검은 산등성이가 마주 보이는 경치 좋은 영선사 수련원이 신심 있는 불자들의 기도처가 되어 많은 이들의 수행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언제 나도 점찰법회가 열릴 때 꼭 참석하리라 마음 먹어본다.

▩서울 반야사 주지

교수초빙

세계수준의 전문대학원인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를 개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

학 과	전공분야	초빙인원	비 고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2명	계약제 임용

2.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돈독한 분

3. 제출서류
기.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니.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 (이력서상의 경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리. 연구실적물('97. 3.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미.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제출기한 2001. 12. 12 ~ 2001. 12. 18. 17:00까지(토요일은 13:00까지)
5. 제 출 처 우편번호 153-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추진위원회 (1층 학무팀장실)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1. 12. 1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02) 808-3321, 8562 Fax (02) 808-8561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 (가칭)

권 대창 불교 건축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권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판매 종류규격
◦연목 : 12자~24자까지 5회~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02)595-1573 FAX 02)595-1575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3일간의 깨닭음
깨달음에는 시절이 없습니다.
깨침의 숲을 거니는 즐거움을
체험해 보십시오.
• 중국의 백림사(아북성 조연)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3시간 깨달음의 수행법이 있으며 사람의 근기에 따라 수행방법이 천차만별이나 이곳의 핵심은 단박(돈오)에 깨우치라고 합니다.
•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소망을 실현하며 오랜 질병도 다스려져 새 삶이 시작됩니다.
◉ 방학기간 중 단 3일 ◉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지혜를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心田堂 (구대광사)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헹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